

 **PRRS 청정화 한국형 방제기법 확립**

**+ 검역원, 현장적용 결과 청정화 효과 확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양돈농가내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의 청정화(안정화)를 위한 모델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검역원이 제시한 한국형 방제기법은 일괄사육 양돈장 또는 종돈장의 경우 돈군폐쇄(herd closure)기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전략으로 ①돈군폐쇄 → ②모돈군안정화 → ③자돈사비우기 → ④음성모돈갱신 단계를 거쳐 청정화 단계로 이르게 하는 것이다. 또한 정액처리업체인 경우 농장상황에 맞춰 감염우돈의 도태 또는 감염수준별 격리를 통해 안정화 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밝혔다.

검역원은 이 기법을 바탕으로 직접 현장에 적용한 결과, 양돈장 및 정액처리업체 각 1개소가 성공적으로 청정화를 달성했으며 양돈장 3개소에 대해서도 현재 청정화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향후 하반기에도 종돈장 3개소, 정액처리업체 1개소 및 일반양돈장 3개소를 대상으로 청정화(안정화)기법을 적용해 이 전략의 효용성을 더욱 확고히 다질 계획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PRRS를 방제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효과가 불확실한 실정이며 지난해 전국단위 일반양돈농가 240개소에 대한 PRRS 감염유형 분석에서도 약 과반수에 해당하는 102농가에서 PRRS 감염이 확인되고 있어 국내 양돈농가에 맞는 PRRS방제 기법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에 확립된 기법 및 농장 적용 결과를 양돈협회 및 양돈수의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PRRS 청정화 매뉴얼을 제작해 양돈농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10년 7월 30일

 **“수의사처방제는 의약분업과 무관”**

**+ 정영채 대한수의사회장, 올바른 이해 요망**

정영채 대한수의사회장은 지난달 28일 대한수의사회의 올해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밝히는 기자 간담회에서 “수의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수의사처방제 도입에 앞서 이 제도에 대한 정확



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수의분야에서는 의약분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인체의료의 경우 처방과 판매를 구분하는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동물 의료분야는 의료행위의 특성이 인체의료와는 달라 처방과 판매를 구분하는 의약분업이 이뤄질 수 없어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약을 구매해 사용하는 ‘수의사처방제’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밝히면서 자칫 수의사처방제가 의약분업으로 오인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수의사처방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의사처방제 도입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수의사의 양성과 질관리 체계 형성, 가축공제제도의 도입을 통한 가축질병 문제의 공공적 해결, 사육환경 개선, 수의사 법상 자가진료 범위 축소, 동물약사관리제도 강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2011년 도입을 대비, 산업동물 진료수의사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동물 임상 인터넷교육시스템을 올해 12월과 내년 12월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의사처방제는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도로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항생제 내성균 감소, 위해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10여 년 전부터 도입이 논의돼 왔지만 그동안 약사회, 생산자단체의 반대로 도입이 미뤄져왔다.

최근에는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약사회와 생산자단체들도 수의사처방제 도입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으며 추진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 관련법이 개정되면 2011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10년 7월 30일



## 뉴캐슬병 발생 급감 추세

### ✦ 김역원, “철저한 백신접종 결과” 분석

닭의 악성가축 전염병 중 하나인 뉴캐슬병 발생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진단센터는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의뢰된 총 839건의 닭질병을 검사, 분석한 결과 뉴캐슬병으로 진단된 예는 12건(1.4%)에 불과했으며 점차 감소추세를 보여 2010년에는 5월까지 발생한 예가 없었다고 밝혔다.

검역원 관계자는 “현재 감소추세에 있는 뉴캐슬병은 부화장 및 양계장의 철저한 ND 백신접종으로 질병이 예방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백신접종, 철저한 위생, 차단 방역을 꾸준히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캐슬병(Newcastle disease : ND)은 병원성이 높은 뉴캐슬바이러스(NDV)가 닭에 감염되면 2~3일만에 거의 전연령층의 닭이 100% 폐사하는 악성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일시적인 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10년 8월 6일



## 나노항체 정제키트 자립기술 개발

### ✦ 식품·사료 곰팡이독소 10분 이내 검출

#### 검역원·서울대 공동, 대규모 수입대체효과 기대

식품 또는 사료내 존재하는 곰팡이독소를 10분 이내에 검출해 내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실리카 나노물질과 곰팡이독소 특이항체를 이용, 식품 또는 사료에서 문제되는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과 제랄레논을 10분 이내에 분리·정제하는 키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정제키트는 검역원과 서울대 화학과 이진규 교수팀이 2년간 공동연구한 성과물이다. 서울대에서는 150나노 크기의 자성을 띠는 실리카 나노물질을, 검역원은 곰팡이독소 특이항체를 생산했고, 이를 결합해 정제하는 기술을 확립했다. 나노물질과 항체 결합기술은 향후 가축 전염병 질병진단이나 곰팡이독소 이외의 유해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특히 기존 수입키트가 항체와 고정상의 물질을 활용하는 반면,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은 용액속에서 분산력이 뛰어난 나노물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곰팡이독소를 정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정제키트가 산업화될 경우, 현재 수입되고 있는 고가의 면역친화 정제키트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역친화 정제키트 수입추정량은 지난해 80만 달러, 올 상반기 60만 달러 가량이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0년 8월 16일



## 축산현장 '소 모기매개성 질병' 주의보

### ✦ 지난달 이후 감염 의한 기립불능우 전국서 속출

폭염 장기화로 모기 활동기간 연장...질병 기승  
환경 개선·백신접종 등 각별한 예방활동 요구

소 모기매개성 질병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소 모기매개성 질병에 의한 기립불능 소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농가들에게 각별한 예방활동을 당부하고, 예방요령을 내려보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이후 전북 남원·순창·장수·임실, 전남 곡성·순천·구례, 경남 거제·고성·통영 등에서 소 기립불능 증상이 확인되고 있다. 이번 기립불능 소의 연령은 8개월령에서 5년생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다.

증상을 보면, 초기에는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비틀거리거나 전지 또는 후지가 마비되면서 주저 않는다. 그 이후 고열(또는 미열),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키며 폐사한다. 임신우는 기립불능 송아지를 분만한다. 검역원은 의뢰된 가검물 5건을 진단한 결과, 소 모기매개성 질병인 소아까바네병, 아이노바이러스감염증, 소유행열, 추잔병 등을 확인했다. 특히 과거와 달리 2종에서 많게는 4종이 동시감염됐다. 검역원 질병진단센터 문운경 연구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모기매개성 질병에 대한 면역형성이 낮다. 또한 장기간 폭염, 집중호우, 대사성 질병 등이 질병발생을 확대시킨 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신우에 감염될 경우, 병원체가 태아까지 감염을 유발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 태아흡수, 미이라, 유산, 조산, 사산, 허약우, 수두증, 척추만곡증, 사지관절기형 등이 대거 발생할까봐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올 여름 폭염과 폭우가 장기화되는 등 고온다습한 환경에 의해 모기 활동기간이 연장되면서 늦가을까지 모기매개성 질병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검역원은 모기매개성 질병 예방방안으로 소 유행열과 소 아까바네병 백신접종 철저, 축사 주위 모기 서식처의 근절, 축사에 방충망 설치, 살충제 살포 또는 모기 유인등 설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문가 처방을 받아 대증요법을 시행하고, 의심축 발생 시 관할 가축위생시험소 또는 검역원에 검사의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0년 9월 1일



##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 조달청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

한국동물약품협회 부설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이 최근 조달청 품질관리단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받았다.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원장 : 곽형근)은 2008년 개원해 동물약품에 대한 품질보증 검사와 활발한 연구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전문검사기관 지정으로 조달청 납품 계약 시 필요한 시험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돼 타 분야 검사기관을 이용할 수 밖에 없던 동물약품 제조(수입)업체들에게 신속하고 저렴한 검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곽형근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장은 “앞으로 검사역량을 강화해 조달청 검사대상 물품인 소독제와 살균제에 대한 전문 검사기관 지정을 추가토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회원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연구원을 활성화 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안희경 기자(nirvana@afnews.co.kr)  
농수축산신문/2010년 9월 1일